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초등도덕교육전공

이 관 수

2002년 8월

이관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년 6월

목 차

국문초록	1
I. 서 론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7
4. 용어의 정의	7
가. 인성의 개념	7
나. 인성교육의 개념	8
II. 인성교육의 실태	12
1.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실태	12
2. 가정의 인성교육 실태	18
3. 사회의 인성교육 실태	21
III. 현행 학교 인성교육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27
1. 교육과정상의 학교 인성교육	27
2. 효율적인 학교 인성 교육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	33
가.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	33
나.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45
IV. 인성교육의 과제	49
1. 학교의 인성교육 과제	49
2. 가정의 인성교육 과제	54
3. 사회의 인성교육 과제	57

V. 요약 및 결론	63
1. 요약	63
2. 결론 및 제언	67
참고문헌	71
영문초록	74

표 목 차

〈 표1 〉 강력 범죄자 연령별 구성비	25
〈 표2 〉 소년 범죄 현황	26
〈 표3 〉 저학년 인성교육의 내용	28
〈 표4 〉 고학년 인성교육의 내용	30
〈 표5 〉 소학의 내용	34
〈 표6 〉 명심보감의 내용	43
〈 표7 〉 동몽선습의 내용	44

국문초록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이 관 수

지도교수 이 영 문

오늘날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의 인성교육, 가정의 인성교육, 사회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사회, 학교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원인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과제를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현장경험을 토대로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였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에서의 교육현실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사회현상과 도덕성에 끼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범죄 현황도 조사하였다. 또한 과거 한국의 전통적 인성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행 교육과정상의 학교 인성교육의 방법을 연구하여, 과거 인성교육을 긍정적으로 수긍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참된 지식인, 도덕적인 인간, 건전한 신체를 골고루 갖춘 인간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증대해야 하며,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여주는 방안과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 체험, 실천 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하는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가정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의 강화와 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역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부모의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부모들이 인성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부모들이 직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3. 사회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현대 사회에서는 동료집단이나 대중매체, 일반 사회 풍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역시 중요하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하면서 양보와 타협, 함께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며, 유해 환경의 척결을 통한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인성교육은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며, 실현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인성교육은 교육적 구호나 일회적인 방법의 적용으로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인성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와 수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지속적·반복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은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및 사회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유능한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 한 예로 범죄 건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65년을 기준으로 1992년 현재 범죄 발생 증가 비율을 보면 전체 범죄자 수는 약 4.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남자 성인 범죄자 수는 약 5배, 여자 성인 범죄자 수는 약 2.5배, 남자 소년 범죄자 수는 2.3배, 여자 청소년 경우는 16% 증가하였다.¹⁾ 최근의 자료인 200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²⁾ 1991년부터 소년 범죄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전체범죄 중 소년범죄는 7.4%를 점유하고 있다. 그 구성비는 형법범이 96,150명, 특별법범이 46,874명으로 형법범은 지난해 보다 1.9% 증가한 반면, 특별법범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리 현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분파주의 등 수 없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병리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통성을 보유한 규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운동 경기에서, 교통규칙에서, 작은 규모의 규칙에 있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사회는 도덕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병리현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썩었고, 오래 있을수록 더 썩었으며, 배울수록 더 썩은 혼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³⁾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 사회, 요령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서 잘

1) 김준호, 김은경, “여자 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5, pp. 83-84.

2)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범신사, 2001, pp. 90-92.

3) 이종각, “비도덕적인 사회와 도덕교육”, 「교수연구법」, 제12호, 1993. 7, p. 3.

살고, 투기를 해서 잘 살고, 사기쳐서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저기 있는 한 도덕교육은 공염불이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인 틀이 요구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위기설이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선진국 못지 않게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 출세주의에 편승하여 올바른 인성교육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 인격형성,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슬로건은 도덕적인 인간 육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도덕교과 교육에서나마 내실있는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그것마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는 충실한 교육이 부족할 뿐더러 타 교과와의 연계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잘 가르친다.”는 학교일수록 순진한 아이들을 무의미하고 과도한 “숙제”와 “시험”과 공부 규율의 공포 속에 몰아 넣고있다.⁵⁾ 이리하여 학교 교육은 기껏해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을 배출하는 데는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도덕적인 인간을 배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⁶⁾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가정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가정의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 인성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가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와, 성격형성, 가치관 지도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격

4) 김석태,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1.

5) 정범모, “한국교육 이대로 안된다”, 「교육난국의 해부」, 1998, p. 25.

6) 이영문,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의 의의”, 「교육연구정보」, 2000, 3월호, p. 14.

형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가치관은 부의 축적, 출세주의, 형식적인 과시 풍조 등으로 가득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저해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 나머지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입시과열에 못 이겨 자살하는 자녀 등 피해는 심각하다.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옛날의 가정처럼 가치관의 변화와 아울러 인성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날 가정의 인성교육의 현실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21세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은 반드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인성교육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사회·학교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원인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의 전통적인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삭막해지며 학교 교육 역시 진정한 인성교육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오늘날의 인성교육의 실태와 인성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기초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여 인성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가. 인성교육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인가?
- 나. 인성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 다.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 라.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3. 연구의 방법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의미,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재까지 초등학교에 수십 년간 근무한 본 연구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성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인성의 개념

인성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하고, 또 인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인 면에서 인성의 개념은 영어의 'personality'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개념으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람의 성품'을 말하며,⁷⁾ 간혹 '인격' 또는 '성격', '개성'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는 '인성'과 '인격'을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범모(1980, 5)에 의하면 인성은 흔히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여러 가지 말로 정의된다고 한다.⁸⁾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출산 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의 제요인 등에 의하여 저마다 특이한 인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인성이라 한다.

남궁 달화는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다. 성품은 성질과 품격이다.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의 바탕이다. 인성이란 곧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다.”⁹⁾ 라고 표현했다.

이성호(1992, 1-3)는 “인성이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하여 제

7)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주)어문각, 1996, p. 3374.

8) 정범모, “인성검사방법요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 연구실, 1980, p. 5.

9) 남궁 달화, 「인성 교육론」, 서울: 문음사, 1999, p. 190.

각기 나름대로 반응하는 일관적인 행동의 구조와 역동의 특성을 가리킨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고, 인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선 좁은 의미의 인성은 인간으로서 도덕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인간성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인성은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을 의미하고 있다.¹⁰⁾

황응연은 인성이란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관과 정의들의 총합을 뜻하며,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라고 정의하였다.¹¹⁾ 즉,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윤옥은 인성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가치 개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¹²⁾

이렇게 볼 때, 결국 인성이란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남과 구별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즉 인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나 행동 그 자체보다도 어떤 경향성을 뜻하며, 고정적이 아니라 가변성이 있는 적응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인성은 사람다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품으로 개인의 심리적 또는 행위적인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생리적 체계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성격 및 활동의 경향성인 것이다.

나. 인성교육의 개념

1980년대부터 사회의 여러 분야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내부에서보다는 청소년 문제와 연계되어 사회교육·생활지도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오늘날 인성교육은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¹³⁾ 주로 생명의 존중, 정서의 순화, 분노의 조

10) 이성호, 「인성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원, 1996, pp. 1-3.

11) 황응연, 「심리학과 생활」, 서울: 배영사, 1992, p. 190.

12) 이윤옥, 「유아를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1998, p. 13.

13)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보는 관점에 따라, 도덕교육, 전인교육, 민주시민

절, 파괴적 성격의 개선, 또는 윤리교육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¹⁴⁾

교육학 대사전(서명원 외, 교육서관, 1989)에서는 인성 교육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평소의 성격 형성이 바람직하게 되도록 환경과 인간관계 등을 부드럽고 원만하게 하는 일이며, 둘째는 이미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격을 정상적이 되도록 교정하는 일을 말한다. 또한 인성은 사람의 마음이기에 심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가치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⁵⁾ 이를 위해 심성계발훈련과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남궁 달화는 우리의 인간다움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과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며, 가치추구의 실현은 사람으로부터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였다.¹⁶⁾ 즉, 인성교육은 가치 추구의 실현교육이다. 인성이란 인간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질과 품격이고,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요, 품격은 인간의 됨됨이다. 즉 인성은 인간의 마음과 됨됨이로 구성되고, 이와 같이 볼 때 인성교육이란 곧 마음을 교육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마음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것의 구성요소인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인간이 되는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한편으로는 지, 정, 의의 교육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의 교육이다. 가치 교육은 둘로 나누어 개인적 차원의 가치는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사회적 차원의 가치는 도덕적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때 인성교육은 첫째, 마음의 발달을 위한 정서교육, 둘째,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 셋째, 더불어 살기 위한 도덕교육으로 구성된다.¹⁷⁾

교육, 인격교육, 품성교육, 심성교육, 성격과 특성교육, 덕성교육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도덕교육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며 약간의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전영길, “사람됨을 증시하는 인성교육”, 「교육경남」, 2000 여름호, p. 17참조.

14) 권순명, “생활지도에서 인성교육의 과제”, 「교육발전논총」, 1998, p. 2 참조.

15) 서명원 외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서관, 1989, pp. 521-522.

16) 남궁 달화, 전개서, pp. 228-230.

17) 남궁 달화, 상계서, pp. 9-11에서 요약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승남은 인성교육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출하면 종래의 방식대로 정의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서교육 차원에서 좁게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전인교육이나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⁸⁾

둘째, 인성교육을 전인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교사와 학생의 만남 즉, 상호교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문화를 전승, 재구성, 창조하는 가치 지향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인성교육의 세 가지 전제로 1) 교육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의 만남 또는 교호작용이고, 2)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며, 3)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격형성이요, 사회적 맥락에서는 문화발전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¹⁹⁾

셋째, 인간교육의 인간의 지·정·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주도적, 도덕적, 공동체적인 인간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²⁰⁾

그러므로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주로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개발되어 그 특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 인격과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의 총체를 가리키는 성격이 결합된 용어로 인성교육은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성격적 측면과 윤리 도덕적 특성으로서의 가치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교육행위인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사회의 맥락 속에서 인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그 개념이 규정될 수 있는바, 그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전인적인

18) 손승남, “21세기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철학적 구상”, 한국교육과학연구 4, 1999, p. 76.

19) 한상효 외, 「교육학 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4, p. 25.

20)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실제」, 강원: 조양출판사, 1995, p. 10.

성장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인이 사회 개선에 대한 책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교양과 개성,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²¹⁾ 특히 인성교육의 세 가지 영역, 즉 교양, 개성, 능력 중에 덕성 부분에 그 중점을 두고 지도되어야 하겠다.

21) 교육부, 「도덕성·인성교육 계획」, 서울: 교육부, 1955, p. 56.

II. 인성교육의 실태

1.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의 실태

인성 교육의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과 구현 의지의 결핍이다.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간을 기르겠다는 확고한 철학도 없고 인간 교육을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을 통해 구현하려는 의지도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 선조들의 학문의 길을 보면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분명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 실태는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²²⁾

첫째, 우리의 교육에서 인성교육, 도덕교육은 하나의 구호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스며든 원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우리 학교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입시교육에 압도되어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학교 교육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곧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입시교육에 밀려 소홀히 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 관련 인사들의 인간 교육, 도덕교육에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성 함양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인간 교육은 관련 인사들의 참여와 관심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인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그들간의 시각과 요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우리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2) 조난심, “인간 교육의 구현 방향”, 『교육연구정보』, 제18호, 강원도교육연구회, p. 6.

학교에서의 인간교육, 도덕교육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등 상부 기관의 요구가 많은데 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은 무관심하여 협조와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학생이 기초학력 부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송하는데 비해,²³⁾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성적, 그 중에서도 국어, 수학 등 중요한 교과목의 성적에 관심을 가질 뿐, 인간적, 도덕적 품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도덕적 태도와 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보이는 각도와는 다르게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교장이 주로 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훈화 교육을 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 시간에 열의 있게 참여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는 의심스럽고, 교사들은 스스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동료 교사 중 무사 안일하고 인격이 의심스러운 교사도 있다고 개탄한다. 도덕 교과 시간이나 훈화 시간에 바른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고 있으나 교육자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친 말을 사용하며, 교육자 자신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사들과의 대화 중에서도 나오며 특히 경력이 많은 교원일수록 도덕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옛날의 소학, 명심보감 등은 교육의 내용이 인성 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스승 역시 모범을 보이며 학생들은 스스로 존경심에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하여 스승은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고, 사랑의 매로서 교육을 한 것이다. 제자 역시 사랑의 매를 고맙게 여기며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 역시 선생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 학교 교육은 지적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사랑의 매가 사라진 지 오래며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을 팔고 사는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승은 많아도 스승은 없고 제자는 많아도 제자는 없는” 형식적 교육의 시대가 된 것이라고 교육자들은 개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참다운 인성교육의 부재 속에서 형식적인 인간 교육을

23) 권균, “한국교육의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0, 머리말.

하고 있는 것에 교육자는 누구나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그 행동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스승상’에서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예전처럼 교사를 존경하지 않으며, 교사 자신도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교육, 도덕교육에서는 ‘교육자료’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내용’ 보다는 교사 자신의 ‘인격’에 의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인간교육에서 교사로서의 됬됨이가 중요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본질적이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²⁴⁾

현재 우리 교사들이 도덕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사표로서의 역할 수행이다. 교사는 학생이 본받을 모범으로서 항상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교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 혹은 학교의 일상 생활을 통해 지도해 나가는 역할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 수행은 오늘날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전체사회 속에서 교사가 예전에 누렸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의 절차를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종의 중재자의 역할이다. 오늘날 서구의 대부분의 도덕교육 이론들이 제안하고 있는 도덕 교사의 역할로서, 교사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생 스스로의 건전한 도덕적 판단을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발달이 이루어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도덕교육에 적절한 교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이러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도덕적 논의와 사고를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며, 학교의 일상 사태에서 일방적인 지식위주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풍토가 지배적이므로 이러한 역할 수행은 실제

24) 조난심, 전개논문, p. 9.

로 이루지기 어렵다. 셋째,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입장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의 문제에서 이러한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덕 교과가 아닌 일반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교과의 지식 전달 이외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가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 및 지도 등의 요구는 과외의 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려 하지 않는다. 도덕 교과에의 경우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과서 중심의 지식전달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인성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했듯이 교사의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사들의 가치가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보이는 교사들이 많다는 점이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명확한 일이다.

교육부는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 발표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추진 계획을 마련 시달했다.²⁵⁾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각 학교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답사를 하고 학교 간 학생들이 교류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그 나름대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교육이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는 인성 교육과는 무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보이게 되고, 선생님들은 교육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됨을 보게 된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가정으로 보내놓고 교사와 학부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즐기는 장면을 모를 리 없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전 김병두 교육감의 도덕성 함양 6운동은 목적과 취지는 인성교육에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사 잘하기, 차례 지키기, 도와주기, 웃어른

25) 교육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교육월보」, 통권 178호, 1996, p. 80.

모시기, 아껴 쓰기, 참고 견디기의 운동은 사람의 도덕성이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도덕성 함양 6운동이 잘 이루어진다면 강원도의 인성교육은 성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 함양 6운동 교육을 12년이나 하여 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6운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배출되어, 오히려 스승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오물 버리는 것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교육자들은 사회의 탓으로 돌리지만 과연 그럴까? 교육자들이 인성교육은 다음과 같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학생을 담당한 교사의 책임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결핍과 모범을 보일만한 행동의 괴리이다. 나는 ‘아’하지만 너는 ‘어’ 해야 된다는 식이다. 선생님들이 있는 관사 주위를 돌아보자. 누가 쓸어주기를 바라는가? 주변에는 오물로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해도 풀 한 포기 뽑을 줄 모르는 교사에게 어떻게 존경심이 나올 수 있으며, 올바른 제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둘째,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실적 위주의 도덕성 함양 6운동 전개이다. 학교에서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 행사를 하며 글짓기를 하고, 연구학교를 설정하여 연구를 하지만 행사에 불과함을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행사위주, 실적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또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 어떻게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충분히 생각을 한 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행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 함양 6운동하면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분야별 짓기 대회가 우선 떠오르고, 그에 대한 행사가 대표하기도 한다. 좋은 교육방침에도 교사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형식적인 움직임에 진정한 교육의 효과를 얻기란 힘든 것이다.

셋째, 교장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훈화교육을 한다. 훈화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그 효과는 매우 의심스럽다. 선생님들에게 직원 협의 시간에 교육자로서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역설한다. 그것도 역시 말로 끝나기 일수다. 제대로 교사에게 덕목 교육이 딱혀 들어가지 않는다. 교장이 선생님의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에 그것을 듣는 태도는 씹씹하며 잔소리한다는 식이다. 교사들에게 관심 없는 소리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역시 교사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넷째, 학교의 도덕교육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부족이다. 학교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것이 속한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덕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면 학생들은 겉으로만 또는 학교 안에서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도덕교육과 가정 및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가 잘되어서 일관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우리 학교들에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도덕교육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회, 경로행사, 사회의 예절교육 단체, 학교 주변 정화운동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실효성 없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교의 밖에만 나서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거리가 먼 다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은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세속적인 사회의 영향력은 거센 파도와 같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이다.

다섯째, 가르치는 선생님의 도덕적 교육의 관심 문제이다. 교장을 의식하고 학부모를 의식하고 그에 맞추어 교육을 하다 보니 소신이 없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학생을 바라보면서도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아예 묵시하여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장난을 치며 아수라장이 될 때도 있다. 설령 선생님이 훈계라도 하면 학생은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혼내준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학부모는 교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며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과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5년 전 3학년을 담임하였을 때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학생이 심히 장난을 치며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을 들게 하였다. 손을 드는가 하더니 울며 운동장으로 뛰어 나갔으며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학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선생님이 나를 벌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그 후로 가정의 부모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도덕교육을 시도하였으나 얼마나 도덕성 교육에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자포자기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도덕교육의 방법상의 방황으로 오늘날 도덕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심한 갈등은 자율성이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가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적어도 고학년 수준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적인 독서”, “자율적인 학습”, “자율적인 인간” 등을 들 수 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율성에 대한 생각을 보면, 대체로 젊은 교사일수록 자율성을 강조하고 허용하자는 편이고, 경력이 많은 교사 특히 교장은 자율성보다는 질서 유지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는 생활지도를 통한 도덕교육의 중핵인 담임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지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교장이 주장하는 전통교육과 젊은 교사들이 주장하는 자율성 교육간의 차이에서 오는 지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2. 가정의 인성교육 실태

현대 산업 사회가 발달하면서 학생, 청소년들에게 대한 도덕적 역할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가족제도의 가족적 도덕관이 핵가족화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성교육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또는 어머니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는 각자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도덕적 인성교육은 힘들게 되었다.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사회에서 자녀를 돌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교육에서 벗어나 그릇된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 예절이 바르지 못하며, 말의 예절이 바르지 못하며, 걸음걸이의 예절이 바르지 못하며,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 바르지 못하며, 식사 예절의

지도가 미흡한 것 등 그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학교의 점심시간에 수저와 젓가락을 바로 잡는 학생은 231명중 7사람(강원도 홍천군 서석초등학교 학생 199명 및 병설유치원 학생 32명의 급식 실태조사, 2002년 3월 15일 본 연구자 조사)이라고 하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²⁶⁾ 또한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과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서 교육은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²⁷⁾ 자녀의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는 반면, 자녀의 성적 올리기, 학교의 우등생 되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 갈수록 심각하다. K양의 사례는 과잉 대학 진학의 피해 사례를 말해주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반성, 부모의 의식 전환을 위한 자료로서 림영철의 “인간교육의 몇 가지 조건들”의 내용을 소개한다.²⁸⁾

K양은 서울의 J여고 3학년생, 반에서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착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좀 떨어진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부모는 오히려 3학년이 되었으니 올라가야 할 성적인데 떨어졌다고 하여 노발대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도 가끔 사용했던 매질을 강화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숙제검사, 노트검사를 하면서 담임 선생님에게도 전화를 자주 하였다. 더욱이 시험성적이 나오는 날에는 흔히 날벼락을 맞곤 하였다. 그래서 K양은 시험 때만 되면 늘 초조하였고, 그래서 그랬는지 성적은 더 많은 폭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불안하고, 어찌면 절망적이었던 K양은 그의 일기장에 “나는 이 세상에 아무 것에도 쓸모 없는 사람이다. 밥만 먹는 먹충이다. 이런 나를 낳은 부모를 원망한다. 그렇게 낳아 놓고 못났다고 때리는 아버지가 정말 밉다. 나는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써 놓고는 그 날 공부를 마치고 학교 5층 교실 창문에서 떨어져 세상을 버렸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26) 학교의 점심시간에 수저와 젓가락을 바로 잡는 학생은 231명중 7사람(강원도 홍천군 서석초등학교 학생 199명 및 병설유치원 학생 32명의 급식 실태, 2002년 3월 15일 본 연구자 조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식사 예절에 대한 지도의 미흡을 나타내고 있다.

27) 강원도교육청, 전계서, p. 11.

28) 림영철, “인간교육의 몇 가지 조건들”, 「교육개발」, 통권 89호, 1994. 5, pp. 10-13.

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장 많은 교육이 요구되는 K양의 부모, 바로 그가 가진 심각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로 그 부모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무지이다. 상과 벌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아도 부모의 구타는 지나쳤다. 매가 지나치면 아이들은 기가 죽고 열등의식을 갖게되며, 의욕이 떨어지고 자포자기에 빠진다. 옛날, 서당에서는 훈장이 매를 때리며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한문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 말은 옳다. 그러나 그 때는 아이들이 기가 죽을 만큼 무서운 매가 아니었다. 오히려 게으름에 대한 반성과 훈장의 사랑을 느낄 만큼 의미 있는 매였다. 더욱이 지금은 인간을 수단화했던 일제의 군국주의 시대도 아니다. 사회는 빨리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의 의식구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다.

둘째로 우리들 부모들은 지난날의 출세주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참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 목표다. 부모의 잘못된 생각은 올바른 자녀를 기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는 출세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지, 덕, 체를 겸비한 자녀를 기르겠다는 확고한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학생들이 보는 부모의 상은 어떠한가?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른들의 예절 점수는 영점으로 나타났다.²⁹⁾ 이 학생들 중 90%이상이 “우리 나라 어른들은 예절이 바르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 줄도 모르고, 줄 안 서기와 세치기를 밥먹듯 하며, 쓰레기 버리기, 침 빨기 선수”라고 지적했다. 이 아이들은 또 “어른들은 무질서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질서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요즘 문제되는 사건의 원인 대부분이 ‘가정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덕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도덕관 정립과 실천을 통한 습관화함으로써, 남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29) 조성숙, “도덕교육 밀어내는 가족 이기주의”, 「교육개발」, 1월호, 1995, p. 43.

사회규범의 내면화 작업인 것이다. 애당초 공존의식이 결여된 부모에게 시민사회의 도덕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녀의 기를 한껏 살려주면서 과잉보호를 해온 부모들의 자녀통제는 먹혀들기 힘들게 마련이다. 부모 자녀간의 수직관계는 무너져 가는 한편, 대중문화의 감각적 환경에 동화되어 가는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요즘 부모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도 의식 있는 부모들은 ‘사랑의 매’라도 들지만, 공부에 지쳐서 사는 자녀가 딱해서, 또는 영악해지는 아이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웬만한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아예 포기하고 만다.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들의 언행자체가 도덕의 표상이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의식과 교양, 그리고 절도 있는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가 아이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때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것이다.

3. 사회의 인성교육 실태

현대 산업사회는 혁명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그것의 사회적 영향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초래하였다. 이 급변하는 사회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적응능력의 차이를 심한 이질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가져 왔을 뿐 아니라, 변화에 추종하다가 자기를 상실하고 나아가 아노미(Anomie)에 빠져 사회기강이 와해되고 범죄 등 비행과 일탈행동이 증가하여 사회는 불안하게 되었다.

그 위에 현대 산업사회에서 조직은 대형화되어서 인간이 점차 적어지고 소외되는데다가 전문화, 분업화로 원자화되기 때문에 획일화되고 인간성은 점차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사회도 이미 인간의 가치를 단지 기술적인 지능만을 우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주체적이고, 목적적이며 가치적일 때 사회가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거의

로봇이 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흔히 인간의 도덕의식이 약화되어 무절제하기 쉽고 낭비벽이 많으며 선악에 대한 구별이 흐려져서 각종 범죄가 악성화 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서양인들이 약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30여년 만에 따라 잡았다. 지나치게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집과 독선, 투쟁으로 체제 가동력을 잃으면 국제경쟁에서 다시 패배자로 전락하듯이, 우리의 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미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자아를 찾게 하고, 그것과 사회적인 자아가 일치되어 허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인 노력이 점차 추진되어야 할 인간교육이라 할 것이다.

삶의 목적은 인간 자체와 인간의 행복과 그 자체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인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물질, 직업, 명예, 학문, 주택, 소득 등과 같은 행복의 수단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목적인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상실되고 인간은 소외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는 계층간의 갈등과 인간성 상실에 의한 인간소외 사회라고 보고 있다.³⁰⁾

종교 역시 인간의 도덕성에 가장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를 배제한 도덕교육은 그 깊이가 얇고, 부분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³¹⁾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도덕적으로 만든다. 공자의 ‘인’의 정신, 부처의 ‘자비’의 정신, 예수의 ‘사랑’ 등 분명히 종교는 우리의 마음에 도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종교의 부정 속에서 삶을 방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음을 보게 된다.

입시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나라의 입시문제의 해결은 사회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도록 제도적, 의식적인 장치를 마련할 때 가능하다. 즉 대학 문은 좁고 지망생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꼭 진학할 필요성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고등학교

30) 최재선 외,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바울서신사, 1991, p. 18.

31) 조난심, “외국 도덕교육의 동향”, 「교육개발」, 5월호, 1994, p. 98.

교 졸업 후 4년간 직업기술교육을 받아 취직했을 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면 구태여 어려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문제는 일자리를 주는 자나 충원제도가 대학 졸업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상은 우리 나라 대학의 많은 학과는 구태여 대학에 두지 말고 학원이나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상당히 보수적인 데 비하여 사회교육은 사회변동에 쉽게 적응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졸업장만을 보고 사람을 선별할 것이 아니라, 실력을 보고 인선하려고 하는 의식의 변화와 그것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폭력과 향락적인 사회 풍토의 문제점으로서 무방비 하게 노출되어 있는 학생, 청소년에 대책이 미흡하다.³²⁾ 사회의 매스컴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여 보자,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말들을 더욱 믿고 따른다. 또, 교사보다 더욱 쉽게 접촉하게 된다. 1:1로 시간을 놓고 볼 때, 교사가 매스컴을 따라 잡기란 대단히 어렵다. 더 이상 교사의 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매스컴 앞에서 교사는 무력하기조차 하다. 학교에서 아무리 언어순화를 부르짖고 강조해도 개그맨들이 쏟아놓는 단 한 마디의 유행어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단편적인 예를 보더라도 매스컴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시청률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에 치중하고 있다. 부모를 살해한 박씨나 연쇄살인을 시도한 지존파는 모두 그 잔악성을 비디오와 책에서 모방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매스컴의 무엇이 문제인가?

매스컴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단절시킨다. 퇴근을 하면 피곤을 이유로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부모와 세대 차이를 내세우며 감각적 자극만을 찾아 채널을 돌리는 자녀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결핍

32) 조난심, 전개논문, p. 12.

되고 메말라간다. 또한, 마스크는 사람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획일화시킨다. 동일한 세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말씨와 행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스크로 인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마스크는 한 사람이 접하게 되는 세상의 전부인 셈이다. 이러한 획일화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들을 자아내는 것이다. 공부를 못하니 자살하고, 돈 번 사람들은 모두 적이니 죽여야한다는 생각이 바로 이런 획일화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획일화는 다시 사람들에게 이중성과 소외감을 안겨 준다. 마스크에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 같은데, 자신은 그 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소외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빚어지는 이중성, 바로 이런 폐쇄적 감정들이 자신을 절망하고 상대를 적대시하며, 성격을 파괴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여러 병리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선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³³⁾ 1965년을 기준으로 1992년 현재 범죄 발생 증가 비율을 보면 전체 범죄자 수는 약 4.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같은 기간 동안에 남자 성인 범죄자 수는 약 5배, 여자 성인 범죄자 수는 2.5배, 남자 소년 범죄자 수는 2.3배, 여자 청소년 경우는 16%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 발생률 증가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전체 형법범죄 중 거의 대부분이 재산 범죄로 각각 97%, 90%로 드러난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1987년부터는 폭력 범죄가 재산 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폭력 범죄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라는 점이 외국과 다른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강력 범죄자의 연령 구성을 볼 때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강도나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강도의 약 76.1%, 강간의 약 44.1%가 된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흉폭화, 저 연령화 현상은 바로 우리 사회에 인간성이 극도로 상실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김준호, 김은경, 전개논문, pp. 83-84.

〈 표1 〉 강력 범죄자 연령별 구성비(1991)³⁴⁾

단위 %

구 분	살 인	강 도	강 간	방 화
19세 이하	12.2	47.9	21.0	8.7
20~25세	19.5	28.2	23.1	15.6
26~30세	19.0	12.7	19.2	17.7
31~40세	26.8	8.3	22.0	32.9
41~50세	13.2	2.2	9.6	16.6
51~60세	5.2	0.5	3.5	5.6
60세 이상	4.1	0.2	1.6	2.9
계(11,796)	100(764)	100(4,673)	100(5,536)	100(823)

200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³⁵⁾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 범죄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 감소하다 2000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전체범죄 중 소년범죄는 7.4%를 점유하고 있다. 그 구성비를 보면 형법범이 96,150명, 특별법범이 46,874명으로 형법범은 지난해 보다 1.9% 증가한 반면, 특별법범은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손경애, “인간교육 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 보고서」, 1993, pp. 43-44.

35) 경찰청, 전개서, 2001, pp. 90-92.

〈 표2 〉 소년 범죄 현황

단위: 명

구 분	'91	'92	'93	'94	'95
계	85,207	86,941	103,655	108,721	123,368
형법범	59,176	68,171	77,112	75,354	84,998
특별법범	26,031	18,770	26,543	33,367	38,370

구 분	'96	'97	'98	'99	2000
계	136,323	153,380	151,383	141,523	143,024
형법범	86,611	99,518	103,243	94,314	96,150
특별법범	49,712	53,862	48,140	47,209	46,874

Ⅲ. 현행 학교 인성교육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1. 교육과정상의 학교 인성교육

가. 바른 생활 및 도덕과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는 주로 바른 생활 및 도덕과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바른 생활과 도덕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초등학교 바른 생활 및 도덕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바른 생활」 36)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알고 습관화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한다. 목표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둘째,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실천을 통해 건전한 인성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제7차 ‘바른 생활’ 교육과정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핵심적인 가치·덕목들의 집중적인 지도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의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내 일 스스로하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 등이다.³⁷⁾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갖고 있다.

36)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38-39.

37)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 83.

〈 표3 〉 저학년 인성교육의 내용³⁸⁾

영역	내용	
	1학년	2학년
내일 스스로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깨끗이 하기 · 자세 바르게 하기 · 스스로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단정히 입기 · 물건 아끼로 정리하기 · 스스로 공부하기
예절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인사하기 · 바르게 식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고 고운 말 쓰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이웃 사람들에게 예절바르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여럿이 함께 쓰는 물건 소중히 다루기 · 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지키기 · 환경을 깨끗이 하기
질서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 지키기 · 학교 규칙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규칙 지키기 ·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바르게 달기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사랑하기 ·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 위 학년별 내용에 제시된 사항은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및 학교의 실정,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목표 달성에 알맞은 활동 내용으로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38)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p. 480.

(2) 초등학교 「도덕」 39)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 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른다.

첫째,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 갈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과 함께 인간 존중의 삶의 자세를 지닌다.

둘째, 가정·이웃·학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 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이러한 생활에서 등장하는 도덕적 문제 사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셋째, 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민주 사회의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넷째, 국가, 민족,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며,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9) 교육부, 전제서, pp. 133-135.

〈 표4 〉 고학년 인성교육의 내용⁴⁰⁾

	주요 가치 · 덕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개인 생활	생명 존중 성실 직주 자주 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 위생, 정리정돈 ·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몸가짐 ·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 시간을 아끼고 잘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한 생활 · 질제하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 · 생명을 소중히 하기
가정 · 이웃 · 학교 생활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 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와 우애 · 인사, 언어, 예절 ·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과 양보 ·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 친구 사이의 믿음과 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 · 이웃과 다정하게 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관용의 자세 · 학교 · 교장의 발전과 협동
사회 생활	준법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 교통 질서 지키기 · 환경을 보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 공정한 생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권익 존중 · 공익 추구의 생활 · 민주적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 자연 보전과 애호
국가 · 민족 생활	국가 애 민족 애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 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 ·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올바른 국제 문화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40)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석(Ⅲ)」,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194-195.

나. 기타 교과 (국어과,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 예 체능과, 등)⁴¹⁾

교과와 관련된 단순한 정보의 주입은 그 교과내용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은 그 자체로서 인간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각 교과에서 교과의 성격을 충실히 지도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덕목을 직접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때에는 관련 덕목을 충분히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인성교육을 바른 생활 및 도덕과에서만 다룬다는 관념을 지양하고 타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성교육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1) 국어

언어활동 능력(언어태도, 언어기능 등)은 도덕적 태도, 능력, 기능에 직결되고,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읽기 자료와 문학작품을 되도록 인성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된 것을 선택함으로써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수학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으로,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서 참에 대한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육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민족정신, 국토애 등 시민적 가치를 기를 수 있다.

41)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강원: 나래기획출판사, 2001, pp. 41-91.

(4) 과학

과학과의 사고와 탐구력은 도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와 탐구 활동에 도움을 주며, ‘생물’, ‘환경’ 학습요소는 환경보존의 정신과 생명존중의 덕목을 기를 수 있다.

(5) 실과

개인과 가정, 산업 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 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생활 기술을 익힘으로써 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노작 활동을 통하여 근면성을 기를 수 있다.

(6) 예·체능

건강, 스포츠 활동, 게임, 여가활동 등 실천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건강관리, 협동정신 등 인성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음악과 미술과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여 심미감 육성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 영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게 한다.

(8) 재량활동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흥미·적성을 수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다.

(9) 특별활동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교과적 활동이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하여 역할활동, 애향심,

올바른 국가관, 통일 준비성, 적성계발, 공동체 의식 등을 기를 수 있다.

2. 효율적인 학교 인성 교육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

가.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물질에 대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도덕성의 상실,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성장과 발달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인간의 정신적 행복 추구, 인성교육은 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인성교육의 약화는 전통적 가치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한 국민의 생존 요건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는 것도 우리의 생존과 발전에 선행되는 것이다.⁴²⁾ 급속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적 도덕관을 음미하여 보고 긍정적으로 수긍하여 실천하는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학 교재로서 ‘소학’, ‘동몽선습’, ‘명신보감’ 및 ‘격몽요결’의 내용과 그 교수법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1) 소학

「소학」의 구성은 책의 서두, 서문에 해당하는 주자의 「소학서제(小學書題)」와 「소학제사(小學題辭)」를 싣고, 본문은 내·외 양편으로 나누었다. 내편은 다시 입교(入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考)로 나뉘고,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편의 장(章)수가 전체의 5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편은 44.55%로 내편의 장수가 외편보다 10.9% 더 많다.

이 내·외편의 구성은 ‘경전으로 도를 싣고, 역사로써 사건을 기록한다(經以載道 史以記事)’는 송유(宋儒)들의 경사관(經史觀)을 반영한 것으로

42) 유안진, 「한국 전통문화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머리말.

보인다.

내편의 입교·명륜·경신은 특히 「소학」의 기본 구조로서 여타의 편들도 이것에 따라서 구조화되고 있다. 입교에서는 남녀가 나이에 따라 배워 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명륜은 쇠소·웅대·진퇴의 예절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의 법도를 규정하였다. 경신은 정이천(程伊川)의 정제엄숙설(整齊嚴肅設)에 따라 지경(持敬)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편의 가언·선행 전대(前代)의 전기를 참고하고 비교적 최근에 보고 들은 견문을 모아 그 중에서 교훈이 될 만한 말과 모범적인 행실을 취사 선택하여 만들었다. 특히 가언 편에는 송대의 것이 86.6%를 차지하고 있는데(선행 편에는 38.3%) 이것은 북송사대부들에 대한 주자의 경노심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⁴³⁾ 소학의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⁴⁴⁾

〈 표5 〉 소학의 내용

구 분	주제	내 용
내 편	입교	태교와 양육법, 교육방법, 스승과 제자의 본분
	명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 등 오륜
	경신	마음과 몸을 기르는 예절, 의복제도, 음식예절
	계고	성현의 행적을 통해 입교, 명륜, 경신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 신중함
외 편	가언, 선행	한이후 송대까지의 현자들의 교훈이 될 언행의 예시

(가) 「소학」의 교육방법

주자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인·의·예·지의 바른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런 바른 성품이 누구에게서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품과 인육⁴⁵⁾이 바른 성품을 구속하고 가려서 밖으

43) 「주자대전」 권 75, 정씨유서후서

44) 김상준, "전통교육의 재조명을 읽고", 「교육연구 정보」, 제29호, 강원도교육연구원, 1997, p. 31.

45) 인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후천적으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말한다. 이 인육이 불완전한 기품에 달라붙어 기품을 더욱 탁하게 하여 그 안에 있는 명덕의 밝은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대학」 삼강령, 주자주 참조〉

로 잘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구나 본연지성(本然之性)과 함께 기질지성(氣質之性)도 함께 지니고 태어나는데, 이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구속하여 밖으로 잘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본연지성은 「대학」에서는 ‘명덕(明德)’이라 했는데, ‘명덕’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텅 비고 신령스러우며 어둡지 않아서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온갖 일에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 이른바 인·의·예·지의 사덕(四德)과 수오지심(羞惡地心)·공경지심(恭敬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등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된 순선의 성품이다. 이에 비하여 기질지성은 기품이라고도 하는데, 본연지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릇 같은 것으로 본연지성과는 달리 사람에 따라서, 그 성질이 맑고(淸) 탁하고(濁) 두텁고(厚) 얇은(薄) 정도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맑고 두터운 기품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본연지성이 잘 드러나서 성인 군자가 되고, 탁하거나 얇은 기품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이 기품의 구속으로 본연지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 이런 사람이 이른바 중인이다.

그러나, 중인에 있어서도 원래의 밝은 본연지성이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지 기품의 구속과 인육의 가림으로 가려져서 어둡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기품의 구속과 인육의 가림을 걷어내고 본래의 밝은 성품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곧 교육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어린아이들은 불완전한 기품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고, 인육 또한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을 변화시키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학』의 교육방법은 이런 이치에 착안하여 구안 되어있다.

특히 『소학』의 ‘입교편’에서는 연령을 중시한 교육의 방법이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철저히 하학상달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문이란, 원래 시작부터 완전히 무르익는 것이 아니다. 인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변에 가깝고 평범하며 명백한 것부터 단계를 밟아서 배우고 익혀서 드디어는 천리를 궁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소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소학의 교육방법은 물 뿌리고, 비질하며 바르게 응대하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되 행실이 흠시라도 이에 어긋남이 없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규범을 실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시경을 외우고 서경을 읽으며, 읊고 노래하여 음악의 소리를 익히고, 춤추고 뛰여 음악의 모양을 익혀,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에서 넘침이 없게 하는 것이다.⁴⁶⁾

부도덕한 행위는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미성숙한 학생들은 자칫 주위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보며 현혹되기 쉽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교훈적인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 비록 그 당시에는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 듣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말에 현혹되거나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소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법도에 맞게 해야 한다.⁴⁷⁾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보고 들은 하나 하나의 것들이 장래의 인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 어른들이 남을 속인다거나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분별력이 약한 아이들이 그것을 흉내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소학」에서는 잉태해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태교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태교는 인간 교육의 첫 단계이다. 태아에게 인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모태 내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태교는 인성교육의 전제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소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잠잘 때에는 몸을 옆으로 기울게 하지 않으

46) '소학계사'

47) '입교' 제 3 장

며, 앗을 때에는 몸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며, 설 때에는 한쪽 발로 서지 않았다. 야릇한 맛이 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자른 모양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으며, 눈으로는 좋지 못한 빛깔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밤이면 악사인 소경으로 하여금 시를 읊게하고, 바른 일을 이야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태어나는 아이가 용모가 단정하며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⁴⁸⁾라고 씌어있다.

이것은 임신했을 때는 마땅히 감화되는 바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으로, 태아는 선에 감화되면 선해지고 악에 감화되면 악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남에 기품의 청탁미오(淸濁美惡)의 차이를 벗어날 수 없으니, 청(淸)한 자는 지혜롭고 탁(濁)한 자는 어리석으며, 미(美)한 자는 어질고, 오(惡)한 자는 불초하다. 임신의 초기는 감화 받는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자고, 앗고, 서고, 먹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모두 청탁미오(淸濁美惡)의 관건이 되고, 지혜롭고(智), 어리석고(愚), 어질고(賢), 불초한(不省) 성품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 된 사람이 어찌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러한 태교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에게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태임은 평소 성품이 단정하고 한결같으며, 성실하고 엄숙하여, 오직 덕스러운 행동만을 하였는데, 그녀가 문왕을 잉태하여서는 눈으로 사나운 빛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왕을 낳았는데, 총명하고 사물에 통달하여, 하나를 가르치니 백을 알더니, 마침내 주나라의 제일 높은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고사가 있는 후부터 동양사회에서는 특별히 태교를 중요시하고, 나이를 계산할 때도 잉태한 그 날부터 셈하는 풍속이 생기게 되었는데, 「소학」에서도 그 취지를 취하여 태교의 중요성과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48) '입교' 제 1 장

49) '계교' 제 1 장

한편, 출생 후의 교육은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입교편’에서 다루고 있다. 그 개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어나서 말을 하게 될 즈음에 이르면 먼저 스승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스승은 반드시 너그럽고 여유 있으며,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말이 적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식이 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거든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며, 말을 할 줄 알게 되거든 남자는 빠르고 씩씩하게 대답하게 하고, 여자는 천천히 부드럽게 대답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쯤부터는 어른을 공경하고 존비·장유의 차례를 가르쳐 이를 철저히 지키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존비장유의 차례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거든 엄하게 꾸짖어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 존비 장유의 예절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된 습관이 버릇이 되어 커서는 고치거나 막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부모를 멸시하고 형제자매를 구타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소학」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데는 그 아이가 원래 나빴기 때문이 아니고 모두가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모가 사려 깊지 못하여 그저 작은 사랑에 빠져 일찍이 예방하지 못하고 자식의 나쁜 습관을 양성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비·장유의 예절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 살이 되면 하나, 둘, 셋 등의 셈하는 법과 동서남북, 상하 등의 방위를 가르치되, 여자아이에게는 이것 외에도 가정의 작은 일을 익히게 하였다. 일곱 살이 되면 사내아이와 계집아이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법도를 가르치고, 밥도 같은 그릇에 함께 먹지 않는 법도를 가르친다. 이러한 ‘남녀칠세부동석’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오늘날 비판하는 말들이 많으나, 사실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일곱 살부터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앉지 말라’는 이 말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쯤부터 남녀유별의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는 교육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태어나 일곱 살쯤 되면

제 일차 성장이 나타나게 되고 아이들 자신도 남녀의 다른 점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 남녀유별의 도리를 이때쯤부터 가르쳐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남녀칠세부동석’이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소학」의 교육방법은 교육의 시점을 중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그때그때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덟 살이 되면 겸양의 미덕을 가르치고, 아홉 살이 되면 날짜 계산법을 가르치며, 열 살이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뚜렷이 구별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자는 사랑방에 나아가 스승으로부터 글씨 쓰는 법과 육갑 등을 배우게 하며, 초보적인 예절을 실천토록 하여 선비로서 지켜야 할 의례의 기초를 몸에 배게 한다. 여자는 규문(閨門) 안에서 생활하며 여선생으로부터 부드러운 말씨와 태도, 순종하는 미덕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그밖에 여자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의 기초를 익히게 한다.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사상이나 사회구조를 생각할 때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대교육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해야 할 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지만, 당시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기르는 「소학」의 교육방법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학」에서는 연령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평생동안 익혀야 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쉬운 것으로부터 보다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일상의 생활규범으로부터 이치를 궁리하는 형이상학까지를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르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나) 「소학」의 교수 가능성

전술한 바와 같이 어린아이를 위해 편찬된 「소학」을 오늘날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소학」이 학생의 인성교육을 하여 편찬되었고, 그 내용도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규범을 담고 있는 책

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기에 가르치기에 적합한 책은 아니다. 우선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한문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소학」의 문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 내용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에 관한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 그 쓰여진 문장은 결코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옛날 어휘가 무수히 많아 최소한 사서 정도의 문리가 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해독해 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의 초등학교 현실을 그대로 말한다면 「소학」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교사가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언해본’도 있고 ‘번역서’도 여러 가지 있어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독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서로가 민망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학」을 지금처럼 사장시키고만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자로 쓰여진 「소학」의 문장이 아니고 「소학」의 아름다운 내용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형제끼리 우애롭고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소학」교육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학」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옛날처럼 그 문장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내용이 중요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소학」교육의 방법은 요즈음 시종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자소학(四字小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자소학」은 책제목 그대로 「소학」의 내용을 낱자씩 묶어서 요약 편집한 것이는데, 언제 누가 편집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그 내용과 편집순서도 약간씩 다른 몇 가지 책이 유통되고 있다. 아마도 조선시대 말쯤에 어떤 선각자가 한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민 자제들에게 인륜도덕을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소학」의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재편집한 것이 각 지방의 서당으로 유포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선의 사대부 자제들은 제대로 된 「소학」을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배웠을 테지

만 일반 평민의 자제들은 그런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평민의 자제를 위하여 뜻 있는 어떤 선각자가 「소학」의 내용을 간추려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녀자씩 엮어서 「사자소학」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사자소학」은 「소학」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문장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녀자씩 운율에 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서당에서 하던 식으로 소리내어 읽고 새기면⁵⁰⁾ 그 재미가 한층 더할 것이다.

만일 이 정도의 한문도 어렵게 여겨진다면, 「사자소학」의 내용을 우리말로 풀이하여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즉 녀자 배기 한문구절을 쉬운 우리말로 풀되, 운율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치면 아이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자소학」을 한문 그대로 가르치든, 아니면 한글로 풀이한 「우리말 소학」을 가르치든 운율에 맞추어 소리내어 읽히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학습의 파지면에서도 그렇다. 재미있게 읽으려면 일정한 곡조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존의 노래곡이나 아니면 전통의 판소리 가락에 맞추어 불러도 재미있을 것이다. 아예 전문적인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된 노래를 만들어 보급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랩’으로 한 곡 만들어 가르친다면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이런 방법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송고한 전통윤리의 내용을 서양의 대중음악에 실는다는 것이 어쩐지 불손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의 보물단지화’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읽히지 않은 책 속에 갇혀만 있다면 그건 교육적이지 못하다. 읽고 이해하여 제대로 실천하는

50) 이 방법을 이른바 강(講)이라 하는데, 이 강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김창욱, "16세기 초기 서원의 강학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6, pp. 104-108.>

것이 중요하다.

「소학」의 좋은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서양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는가? 더욱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보편화된 이론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소학」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동서양의 여러 방법을 적용시켜 보는 것은 교육자의 임무일 뿐이다.

2)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중국 명대의 학자인 범입본이 홍무 26년(1393년)에 편찬한 책으로 책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자기수양과 갖춰야 할 기초적인 덕성을 중국의 여러 고전과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인륜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명심보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삼강오륜을 밝혀 인간관계의 질서 유지를 역설하고, 둘째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의 뜻을 역행하면 망한다는 뜻에서 자신의 분수에 만족할 줄 알고 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하며, 셋째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함으로써 가정,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원칙론을 다루고 있으며 하늘의 섭리에 따른 인격도야를 강조하면서 성현들의 명언을 열거하고 있다.⁵¹⁾

특기할 만한 사실은 초학교재로서의 「명심보감」은 그 각구 내지 덕목을 강조함에 있어서 조선시대 유가적 사고와는 변형된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명심보감」이 선을 행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서 드러난다. 「소학」에서는 선을 행하는 목적이 군자가 되거나 덕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명심보감」은 효용을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초학자의 수준에서 윤리적 행동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려고 한다.⁵²⁾

51)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서울: 학지사, 1996, p. 84.

52) 박경행, “조선시대 초학교재로서의 「명심보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 수록 ii.

그리고 「명심보감」의 구성은 계선편, 천명편, 순명편, 효행편, 존심편, 성심편, 부행편, 근학편 등의 2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여 가지의 금언경구로 이루어져 인생의 다방면에 걸쳐 아주 광범위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중국의 원전에서 뽑아 온 것이지만 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초학교재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명심보감의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⁵³⁾

〈 표6 〉 명심보감의 내용

주제	내 용	주제	내 용
계 선(繼善)	착함은 복음, 악함은 회를 준다	입 교(立敎)	효도, 정치는 청렴과 공정, 근검
천 명(天命)	하늘이 섭리에 순종함	치 정(治政)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의 도리
순 명(順命)	운명에 순응하고 제 할 일을 함	치 가(治家)	가정생활과 운명에 관한 내용
효 행(孝行)	부모의 은덕과 부모 섬기기	안 의(安義)	가족관계와 교우와의 의리
정 기(正己)	겸손, 근신, 분별, 언행의 조심	준 례(遵禮)	용맹과 예의 조화
안 분(安分)	분수에 맞게 만족하라	존 신(存信)	신의
존 심(存心)	반성과 경계로 행동을 삼가	언 어(言語)	언어는 신중하게
계 성(戒性)	자신의 성질을 수양하고 수양함	교 우(交友)	친구를 참되게 사귀
근 락(勤學)	부지런히 배우고 학문에 힘씀	부 행(婦行)	부녀자의 올바른 행동
훈 자(訓子)	자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염 의(廉儀)	사람의 염치와 의리
성 심(省心)	영고성쇠의 순환	근 학(勸學)	어릴 때부터 착실히 배움

53) 김상준, 전게서, p. 31.

3) 동몽선습

「동몽선습」은 중종 36년(1541)에 박세무가 인간의 다섯 가지 도리 즉, 오륜과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고 쉽게 익히도록 만든 아동용 윤리교과서로서 15세기 이후 「천자문」과 함께 오래도록 애독되어 왔다.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경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경 부분은 총서, 본문, 총론으로, 사 부분은 중국사와 동국사로 나누어져 있다.⁵⁴⁾

동몽선습은 우리 나라 최초의 아동 교양 학습서로서 당시 대개의 아동 교재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편집을 통해 독자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오륜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경전에서 초학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을 향한 사대주의 일변도의 시류를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배움을 시작한 초학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이며, 동몽선습의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⁵⁵⁾

〈 표7 〉 동몽선습의 내용

주 제	내 용
오륜(五倫)	부자유친: 효의 기본개념과 질서의 예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
	부부유별: 부부의 역할의 차이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의 질서와 예의
	붕우유신: 벗의 사귄과 믿음
역사(歷史)	중국사
	동국사: 개국신화, 기자, 위만조선에서 조선조까지

54) 조연순, 전게서, pp. 78-79.

55) 김상준, 전게서, p. 30.

4) 격몽요결

격몽요결은 조선 선조 10년(1577)에 율곡 이이(1536-1584)가 지은 초학 교양 교재이다.

책의 구성은 서문과 입지, 혁구습, 지신 등의 10장에 이르는 본문, 그리고 제의사(사당도, 역익도, 시제도와 출입의, 참례의, 고사의, 상복중행제의 등)를 부록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성현이 되겠다는 의지를 세워야 한다는 입지장,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혁구습장, 올바른 몸가짐을 강조한 제신장, 독서하는 방법인 독서장이 앞에 있어 배우는 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예절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인 사친장, 상례를 논한 상제장, 제례를 논한 제례장,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인 거가장, 사람을 대하는 도리인 접인장, 처세의 원칙인 처세장 등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졌다.⁵⁶⁾

특히 부록이 갖추고 있는 제례와 관계된 여러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시청각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서재에도 제시된 것처럼 초학자들을 위해 지어진 교양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성격이 유학을 공부하는데 학문적 지침이 될 만큼 충분하여 폭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여 16세기 이후 관학의 기틀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학교재에 나타난 일반적인 내용은 오류와 같은 윤리·도덕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덕적인 인간 육성의 방안은 자제하고 절도있는 생활 태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생활과 연결시켜 배움이 실제의 삶과 일치하도록 실천궁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학교의 도덕교육은 이제 이러한 분명하고도 실천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덕교육은 실천적인 덕성을 강조하고, 또 이를 직

56) 성백분 석주, 「동몽선습·격몽요결」, 서울: 전통문화연구소, 1992, p. 6.

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⁵⁷⁾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교과목 이외의 방법을 통한 것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도덕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것이다. 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하여 교과목의 내용을 초월한 제3의 시각 즉 ‘눈뜸’이 있어야 한다. ‘눈뜸’은 도덕교과를 도덕답게 가르치려는 절실한 염원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굳은 각오인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지식과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위주의 교육에 우선 그 실천의 당위성부터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가치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교육의 강화와 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성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약화를 극복하고 다시 가정의 중요성과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만큼 인성교육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학교가 의도적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교육의 성공을 위하여 첫째, 부모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는 부모의 이기적인 교육관을 공동체 중심의 교육관으로 전환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부모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극도의 이기적 성향이 강하여 인성교육을 추진하기에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이나 학교보다도 동료집단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일반 사회 풍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대 사회는 대중문화, 상업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해 내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57) 이영문, 전제논문, p. 19.

대중매체와의 관계는 비인간적이고 흥미 위주의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 속에 빈곤 상태인 환상적인 욕구 불만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충동적이 되고 가치관의 갈등을 갖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 자체가 주관되며 사회의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을 조직하는 일이다. 각 부처의 장과 사회단체, 학부모가 모여 교육의 주체로서 협의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는 지적 교육과 행위의 일체 교육을 하고 가정과 연계지도를 하면서 거국적으로 사회의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학교는 인성교육의 본령으로서 인간 교육의 정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그 중심에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위생청결, 물자절약 등의 기본생활 습관지도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생활 습관에 관한 “나의 다짐” 혹은 “우리들의 약속” 등과 같은 실천 점검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가정과 학교생활의 종합적인 생활지침서가 되는 ‘생활본’이나 ‘인성학습장’ 등의 제작 활용으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방법이다. 도·농간 체험 교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수련회활동에 참가하며, 효행일기 쓰기 등의 효의 실천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가족신문이나 예절신문을 만들어 보는 등의 학습을 통해 효도와 경애, 공동체 의식 함양, 기본예절 등의 영역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유관 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전통예절 보고, 실천해보는 것 또한 인성교육의 실천학습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 내면화를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방안제시이다. 내면화라는 것은 표면으로 표출되지 않는 다는 특징 때문에 간과해 버리기 쉽지만,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표출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명상의 시간을 운용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송 교육과 인성실천 발표회, 활발한 독서활동 등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다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빠른 진도가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율성 함양의 인성교육방안이다. 기존의 교내 체육대회 및 소풍, 학예발표회 등을 단순한 행사로서 만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인성교육의 좋은 활성기회로 여겨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인을 육성하는 교육의 더 큰장으로 확대 시켜야겠다.

마지막으로 성취감을 심어주는 인성교육방안으로, 학교 소집단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 번째로 제시한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의 성취감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고 보며, 불우이웃 돕기, 소집단 발표학습 등 학급활동에서 교과 수업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집단 활동과 일기 쓰기 등을 통한 친교활동과 상담 활동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상제도 등을 통한 성적위주의 줄 세우기를 지양하고 각기 다양한 소질과 특기의 발굴과 함께 성취감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개개인에게 이러한 성취감을 심어준다는 것은 재미있는 학교,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IV. 인성교육의 과제

1. 학교의 인성교육 과제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데 있다. 여기서 바람직한 인간이란 지식·덕성·인성·신체적 능력을 겸비한 인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가 지식의 함양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식에는 교양적 성격을 띤 것과 전문적, 기능적 성격을 띤 것이 있는 데, 전자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며, 후자는 실질적인 삶의 능력을 제고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가지 지식은 어느 하나도 경시될 수 없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지식의 전달만으로 완수된다고 볼 수 없다. 지식은 풍부하나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아직도 교육의 현실에서는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등학교에서 도덕교육 시간이 주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의 현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 1 : 교육과정 운영에서 인성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된 기능은 참된 지식인, 도덕적인 인간, 건전한 신체를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이 균형을 갖춘 인간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천적 인성교육 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있는 교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은 전인 교육을 지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간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규정대로 그리고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각 교과를 통해 배운 내용을 각자의 인격에 내면화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인격에 통합될 때 살아있는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교과 교육은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인간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기간이 같은 과정을 체험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종의 기차와 태도를 수업 시간에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 교육은 동시에 인성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교과 수업 시간에 교육적인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제 2 :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도덕적인 교사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지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 교사 자신이 자기 주위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할 때 학생들은 냉담할 것이며 선생님의 말씀에 회의를 느낄 것이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모범적인 부모 교육을 받고 자란 이윤곡은 어머니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교육대학의 교원 양성에서 인성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여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할 때 교육의 효과는 더 증대될 것이다.

과제 3 :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여 주는 방안과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요구된다.

잡무경감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잡무경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잡무는 더 늘어나는 형편으로 교원들에게 정상적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수많은 공문 중에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며, 교수·학습에 대한 내용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이 흐를수록 과거보다 처리하는 공문이 점점 많아지는 데 이는 상급기관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상급기관의 인원 증대와는 반대로 학교 현장의 교사의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40명 이상의 학급에 교사 1명이 지도하는 것보다는 2명의 교사가 지도한다면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 보며,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 지도에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에게 도움이 되며, 상급 기관에는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사의 잡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문의 인원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제 4 : 가정과의 연계 교육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기존 형식을 탈피하여 실천위주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부모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상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연계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많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강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참여 프로그램 활용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5 :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

야 한다.

입시제도가 과거보다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대학은 가고 보자는 생각으로 인간 됨됨이야 어찌 되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인간에 지적인 면을 높일 수 있는 입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더 도덕적인 인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제6 :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은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에서 시달린 인성교육의 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니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즉, 인성 교육의 방법으로 전 교과,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에서 대화, 토론, 상담, 사회 봉사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 윤리를 내면화시키고, 야영장,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단체 수련 활동을 활성화하여 극기력,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적 문제 해결을 통한 실천학습을 제공⁵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실천적 인성 교육을 내세우자는 것이다.

여기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써보도록 한다.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self-respect)하며 수용(self-acceptance)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를 자서전을 써보듯이 되돌아보고 되새겨봄으로써

58) 교육부,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 강화”, 「교육월보」, 통권 178호, 1996, p. 80.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매일 아침 등교한 학생과 정답게 인사를 나눈다.

교사가 매일 아침 교실에서 등교하는 학생 하나 하나를 활짝 웃으며 기쁜 얼굴로 맞이하고, 손을 잡고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자고 격려해 준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엔 품에 꼭 안아주고 엄마처럼 등을 토닥이며 반겨주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성교육은 표면적 교육과정보다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며, 교사의 이와 같은 애정표현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의도적인 소집단 협력 학습의 경험을 많이 시킨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더 낮고, 두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낮기 마련인 것이다. 소집단 상호 협력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학력수준과 학급집단의 심리 거리를 파악하여 의도적인 소집단 조직과 상호 토의 학습이 몸에 익어야 하겠다.

인성교육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의 형성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교화나 설득이 아닌 집단 자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dynamic interactio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랑의 5분 대화’ 시간을 설정하고 실천한다.

한 사람의 담임 교사와 다 인수 학생과의 사랑 넘치는 대화의 실천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담임 교사는 수업 전이나, 수업 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 잠시 시간을 내어 개별상담을 하는 지혜와 사랑이 요구되고 있다.

사제간의 대화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의미하고 영혼과 영혼의 교감을 가져오는 것이다. 신뢰 있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감적 대화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성찰을 돕고 자기통찰이 이루어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인성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다섯째, 인성교육 최후의 열쇠는 교사의 솔선수범에 달려 있다.

학생은 늘 교사의 지식이나 기능을 물음에 앞서 그 인간됨을 묻는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람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행동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의 자질은 인성교육의 결실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제간의 진정한 감화는 이럴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는 설명을 잘하고, 훌륭한 교사는 시범을 잘 보이지만 위대한 교사는 감화를 주는 것에 익숙하며 진정한 인성교육은 감화의 이슬을 머금고 꽃 피워지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인성 교육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겠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강원홍천교육청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의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단 수기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권 오명 선생님은(홍천 서석초등학교)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한 인성교육, 부모를 통한 인성교육, 형제들이 한 이불 속에서 자라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고 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싹 텔지만, 오늘날은 훈훈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없는 어린이에게 공동체 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담요를 몇 장 깔아 놓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게 하며 월남 전선에서 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옆 친구와 정이 들며 더욱더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다.⁵⁹⁾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의 감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실현 가능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겠다.

2. 가정의 인성교육 과제

인성교육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하

59) 권오명, “월남 이야기에 교훈을 담아”,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강원도홍천교육청, 2001, p. 18-19.

기 이전의 가정교육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에서 인성교육의 씨앗이 제대로 심어지기 위해서 강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 1 : 부모의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말과 행실이 다른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부모 밑에서는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인성교육은 누가 할 것인가? 복잡한 사회에서 생활하고 생존 경쟁에 지치다보면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은 곧 학생들이 본받게 된다. 따라서, 인성 교육의 차원에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할 것이고, 부모의 인성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별도로 사회적 기관으로 하든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또한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과제 2 : 가정의 인성교육을 위해 부모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일이다.

올바른 도덕성과 지의 자질을 갖춘 부모에 의해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계획과 실천 중심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과제3 : 부모가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를 보는 비판적인 안목이 길러지게 된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고 소화해 나갈 수 있지만, ‘우

리 아버지·어머니가 별로 올바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 부모에게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을 배신당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건너지 못하는 차가운 강이 생겨 마음과 마음을 갈라놓게 되고, 불량 청소년을 길러내는 온상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배후에 문제 부모가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정직한 자녀를 원한다면 내가 정직해야 하고 부지런한 자녀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부지런해야 하며, 경건한 자녀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과제4 : 자성 예언적 기대에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은 부모의 믿음과 기대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학생은 바람직하게 잘 성장할 것으로 믿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것으로 기대하며, 잘 될 것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학생은 부모가 못 다한 한 맺힌 보상심리에 따른 슬픈 명예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과제5 : 어릴 때부터 자기지도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강조할 때, 고기를 잡아주 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들 말하곤 한다. 제 공부를 제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하고, 어릴 때부터 세수·목욕·이부자리 개기 등 혼자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책임감 있는 생활 태도와 자율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데 소중한 밑바탕이 됨은 물론이다. 어릴 때의 습관이 일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기품성의 개발에 힘쓰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과제6 :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길러주어야 한다.

내 집 아이만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서로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과 보람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과제7 : 자녀를 균형 있게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신의 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과 감성의 균형과 조화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즈음 머리만 크고 가슴이 텅 빈 청소년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다. 어느 인기가수가 다쳐서 입원을 하자 안타까워 목숨을 버린 여학생의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지식·정보 못지 않게 감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을 종종 듣고 또 하기도 한다. 자녀를 균형 있게 키우려면 우선 부모의 정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먼저 품성이 좋아야 한다. 특히 자녀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함은 물론이고, 매사에 결정은 신중히 하고 실천은 성실히 해야 하며, 사랑과 엄격한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3. 사회의 인성교육 과제

인성교육은 학교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하나가 되어 관심을 갖고 연계를 이루어 실천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사회 교육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제 1 :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⁶⁰⁾

인간은 유희의 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간에 있어 유희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문화 창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의 유희는 지능은 물론이고,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놀이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여러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럿이 어울리다 보면 양보와 타협이 몸에 배게 되고 상대

60) 노유진,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사회교육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 논문, 1998, pp. 98-100.

방의 처지나 입장을 고려할 줄도 아는 아량이 생기게 된다. 즉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 공부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놀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기를 강요하면서 외톨박이 학생들의 새로운 놀이 형태를 탄생시키게 하였다. 컴퓨터게임이 그것인데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이나 상호 관계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기계와의 접촉에 몰두하면서 많은 학생들은 비인간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중학년 이하 학생들 중에는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는 같은 반 친구와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몇 마디의 말조차 건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이는 삭막해져만 가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들만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 조성에는 법적으로 놀이터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그나마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라도 있음을 고마워할지 모른다. 놀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없다면 놀 장소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학생들에겐 운동장과 놀이터밖에는 제대로 뛰어 놀만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놀이의 보급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놀이 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초등학교 어느 교과를 보더라도 놀이 거리를 제대로 소개하거나 가르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위의 학생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이의 형태나 내용이 다양하기보다는 수십여 가지에 불과해 그 놀이가 그 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일부 사회단체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노력으로 민속놀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통놀이의 보급과 확산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부족한 놀이거리로 인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 학생들의 놀이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제대로 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놀이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건전한 놀이거리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놀이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놀이 문화가 정착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놀이거리만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놀이에 심취하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공간과 놀이 거리가 함께 존재해야만 놀이다운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어른들의 놀이 문화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놀이를 접해보지 못한 성인들의 경우 놀이라는 것이 기껏 고스톱과 같은 화투 치거나 음란, 가무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엄밀히 따져 보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놀이 문화를 조성해주지 못하는 사회 전반의 무책임에 기인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인들의 바른 놀이 문화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놀이 공간과 놀이거리의 개발에 좀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돈과 여성의 상품화로 얼룩진 성인들의 놀이문화 속에는 바른 인성과 인격은 찾아보기 힘들고, 놀이 자체가 비인간과 비 인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성의 결여에 의한 사회적 부패와 부정, 인명 경시의 풍조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온 성인들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른 인성 함양의 필요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학생들부터 바른 인격과 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면 거세 질수록 우리의 사회는 그 만큼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사회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조차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학생들의 인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병드는 것이 아니다. 진정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비도덕적 형태를 자연스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제 2 : 건전한 종교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

들의 도덕적 발달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동기의 신앙은 그의 주위에 있는 어른들 속에서 사랑과 선, 신뢰와 공평을 체험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행복한 아동기를 향유하게 하는 중요한 기재로 작용한다고 한다.⁶¹⁾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천도교 등, 현대 종교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는 것을 보아도 종교 생활이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어떠한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각종 종교 단체에서 성인 못지 않게 학생들에 대한 포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성인보다는 인성적인 변화 가능성이 크고, 바른 종교적 생활 태도의 함양이 더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는 결국 각각의 종교마다 표현 형태는 달라도, 학생들을 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교육적 접근 방법으로 종교 교육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각 종교 단체의 교육적 기능을 지금껏 지나치게 축소 내지는 왜곡한 감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종교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교육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그 빛이 많이 퇴색되어 교육적 기능을 과소 평가받고 있는 듯하다.

종교는 개인의 삶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지침이 되어주기도 하며,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게 하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 이러한 엄청난 힘을 이용해 보자는 것이다. 종교적 교리를 배우고 깨우치며 실천하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체득케 함으로써 인성 변화를 꾀해보자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바른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도

61) 신연식, 「유아교육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82, p. 451.

록 하자는 것이다.

과제 3 : 유해 환경의 척결을 통한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학교 주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교육적인 환경요인은 학생들의 비행과 탈선을 조장한다. 불건전한 만화나 잡지, 비디오, 영화 기타 오락물 등 비교육적인 유해 환경은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생활 세계를 피폐케 하여 바른 인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철저한 근절책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면장에게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정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여 활동하고, 정화 구역 안에 있는 유해 환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폐업소 등 인성을 해치는 환경은 점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과제4 : 매스컴을 통한 인성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매스컴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날 매스컴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오락성 위주로만 변해가고 있다. 매스컴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프로그램들은 지양되어야 되겠고, 인성교육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이나 극작가들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방송 관계자들이 먼저 사회교육의 전담자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5 : 인성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일이다.

우리의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가정,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사회의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을 촉진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사회단체에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6 : 청소년을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선도 보호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및 유관 기관의 협조아래 청소년 선도 단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청소년이 강도, 절도, 폭력, 약물복용 등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도 문제지만 무단가출, 불량 청소년과의 교제, 유해한 장소에 출입, 음주, 흡연 등 범죄 유발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은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소년 교실 등 보호·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²⁾ 그 예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운영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4, 5, 6학년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물론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의 공동체 청소년 선도 단체를 만들어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62) 경찰청, 전계서, p. 90.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1세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은 반드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인 인간 육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가정 또한 핵가족화로 전통적 인성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지도와 성격형성, 가치관 지도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인성교육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가정, 사회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원인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인성이란 ‘사람의 됨됨이’, ‘개인의 특유한 감정, 의지, 행동 경향’을 의미하고, 인성교육은 그 같은 특성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은 인간교육이나 전인교육에 내포하는 것으로 가치관교육, 민주시민교육, 도덕교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인성교육 상황에서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을 제안하였다. 현대 사회의 인성교육의 약화는 전통적 가치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한 국민의 생존 요건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는 것도 우리의 생존과 발전에 선행되는 것이다. 급속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적 도덕관을 음미하여 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실천하는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소학은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규범을 담고 있는 책으로, 소학의 내용을 요약 편집한 사자소학을 활용한다면 소학을

효율적으로 인성교육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명심보감, 동몽선습, 격몽요결 등의 고전이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스며든 원리로써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구호로 그치고 있으며, 입시교육에 압도되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인성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을 담당한 교사의 책임이며, 실적위주로 인성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교장들의 인성교육이 관리자적 입장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도덕교육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부족으로 일관성 있는 지도를 못하고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인성교육에 관심이 부족하고, 교장·학부모들을 의식하고 그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성을 교육할 때 자율성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할 지에 대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의 인성교육을 살펴보면, 현행 교육과정상에서 초등학교 바른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 습관과 예절 및 규범을 알고 습관화하여,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도덕교육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 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요구, 사회의 요구는 도덕적인 인간보다는 지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적 환경 미비와 교육자 스스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자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대가족제도의 가족적 도덕관이 핵가족화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성교육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또는 어머니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모는 각자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에서 가정에서의 도덕적 인성교육은 힘들게 되었다.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사회에서 자녀를 돌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교육에서 벗어난 그릇된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녀의 예절 교육은 등한시 하나, 자녀의 성적 올리기, 학교의 우등생 되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높아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분파주의 등 우리 사회의 도덕적 병리 현상들이 사회 깊숙하게 깔려 있고, 우리 사회에서 정통성을 보유한 규범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 사회, 요령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서 잘 살고, 투기를 해서 잘 살고, 사기 쳐서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저기 있는 한 도덕교육은 공염불이다.

오늘날 사회는 날로 비인간화되는 사회적 상황과 교육적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적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의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함은 인성교육의 목표라고 생각되며, 그러기에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하기에 그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으로 학생 예절교육 시설은 다소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고 어른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며, 사회 환경은 도덕성에서 벗어난 상업성을 띤 오락적인 것이 많다.

인성교육과 거리가 먼 오늘의 현실에서 진정한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를 학교, 가정, 사회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지식과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참된 지식인, 도덕적인 인간, 건전한 신체를 골고루 갖춘 인간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이 이루어 한다. 또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증대해야 하며,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여주는 방안과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체험, 실천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 가정과 연계하는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나. 가정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의 강화와 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역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부모의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성 예언적 기대에 안색하지 말아야 하며, 어릴 때부터 자기 지도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올바른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성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부모들이 직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다. 사회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현대 사회에서는 동료집단이나 대중매체, 일반 사회 풍조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역시 중요하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하면서 양보와 타협, 함께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게하며, 유해 환경의 척결을 통한 인성교육과 매스컴을 통한

인성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일이다. 또한 경찰 및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일이다.

즉, 학교에서는 지적 교육과 행위의 일체 교육을 하고 가정과 연계지도를 하면서 거국적으로 사회의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학교는 지적 교육과 아울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이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 여럿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협동할 줄 알아야 하며,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이한 인성을 갖고 있다. 활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활동적인 사람이 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인정한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인성이 다르며,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인성이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인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환경과 교육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성교육은 그 실효를 거두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학교, 가정,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성교육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의 학부모 및 사회가 인성교육의 협력자로서 공헌하여야 한다. 학교, 가정, 사회의 사이에 학생의 학습 및 발달에 관한 공유된 목적과 사명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성교육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학교는 가정 및 사회를 학교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함과 동시에 가정 및 사회를 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지원·보강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가정에 보급해 줄 수 있어야 한

다. 동시에,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교 행사들에 가정 및 사회를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해로움을 주는 사회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가정, 학교와 사회 사이에 열린 양방향적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결코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며, 실현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인성교육은 교육적 구호나 일회적인 방법의 적용으로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인성교육은 어느 도덕 교과와 지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학교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지속적·반복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가정 및 사회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유능한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하며, 특히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에 소학, 동문선습, 격몽요결과 같은 우리의 고전을 통한 덕목교육을 초등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편성하는 일이다.

옛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오늘의 현 시점에서 올바른 도덕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옛것이라 하여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것이라 하여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고전을 오늘의 현실에서 바르게 조명하여 보고 새롭게 우리의 도덕성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행사 위주의 교육, 실적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기본적인 질서 교육부터 아동들에게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높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예절실 설치와 효율적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일이다.

셋째, 주당 도덕과 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더 확보하여 인성교육에 효

을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주당 한 시간으로는 질 높은 인성교육을 하기 힘들며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므로 시간의 확보를 충분히 하여 밀도 높은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과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주제별로 여러 교과가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사 양성교육을 하고 현직에서도 연수를 통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에게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모범 교사를 양성하는 연수기관을 확보하는 일이다.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모범적인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교사가 교단에 설 때 인성교육의 효율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연수 기관에서 연수하는 일이다.

여섯째, 모범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사회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성교육기관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부모의 교육까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기관을 만들고 부모가 연수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일이다. 물론 바쁜 현실 속에서 어렵다 보지만, 직장 단위 또는 직업별 단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모범 부모 밑에 학생들은 올바르게 자랄 것이다.

일곱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를 정화하는 일이다.

사회의 부패 현상이 심각한 오늘의 현실에서 아무리 교육 현장에서 노력하여 보아도 인성교육의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패 현상을 뿌리 뽑는 일이다. 퇴폐업소의 일소, 각종 부조리

일소, 신문이나 TV의 홍보매체의 오락성을 일소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를 정화시킬 때 진정한 인성 교육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강원: 나래기획출판사, 2001.
-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실제」, 강원: 조양출판사, 1995.
-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범신사, 2001.
- 교육부, 「도덕성·인성교육 계획」, 서울: 교육부, 1955..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석(Ⅲ)」,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 남궁 달화,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1999.
- 성백분 석주, 「동몽선습·격몽요결」, 서울: 전통문화연구소, 1992.
- 서명원 외,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서관, 1989.
- 신연식, 「유아교육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82.
-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이성호, 「인성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원, 1996.
- 이영문,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서울: 원탑문화, 1993.
- 이윤옥, 「유아를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서울: 창지사, 1998.
-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서울: 학지사, 1996.
- 최재선 외,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바울서신사, 1991.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서울: (주)어문각, 1996.
- 한상호 외, 「교육학 개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4.
- 황응연, 「심리학과 생활」, 서울: 배영사, 1992.

2. 논문

- 교육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강화”, 「교육월보」, 통권 178호, 1996.
- 권균, “한국교육의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0.
- 권순명, “생활지도에서 인성교육의 과제”, 교육발전논총, 1998.
- 권오명, “월남 이야기에 교훈을 담아”,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강원도홍천교육청, 2001.
- 김상준, “전통교육의 재조명을 읽고”, 「교육연구 정보」, 제29호, 강원도교육연구원, 1997.
- 김석태,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준호, 김은경, “여자 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5.
- 김준호 외,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김창욱, “16세기 초기 서원의 강학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6..
- 노유진,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사회 교육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8.
- 림영철, “인간교육의 몇 가지 조건들”, 「교육개발」, 통권 89호, 1994.
- 박경행, “조선시대 초학교재로서의 「명심보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손경애, “인간교육 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 보고서, 1993.
- 손승남, “21세기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철학적 구상”, 한독교육학연구 4, 1999.
- 이영문, “초등 도덕교육에서의 기본 생활습관 교육의 의의”, 「교육연구 정보」, 2000.

- 이종각, “비도덕적인 사회와 도덕교육“, 「교수연구법」, 제12호, 1993.
- 전영길,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교육경남」, 여름호, 2000.
- 정범모, “인성검사방법요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 연구실, 1980.
- 정범모, “한국교육 이대로 안된다“, 「교육난국의 해부」, 1998.
- 조난심, “외국 도덕교육의 동향“, 「교육개발」, 5월호, 1994.
- 조난심, “인간 교육의 구현 방향“, 「교육연구정보」, 제18호, 강원도 교육연구회, 1994.
- 조성숙, “도덕교육 밀어내는 가족 이기주의“, 「교육개발」, 1월호, 1995.
- 추병완, “인성교육의 목적과 기본원리“, 「학교경영」, 7월호, 교육연구사,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Tasks of Character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Lee, Kwan Su

Major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ervised by Ph. D. *Lee, Young Mun*

These days, rapid changes in our value system make character education very difficult, at school, at home, and at a community level.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make character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challenging and we also investigate the tasks of character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s of education which elementary school faces now. The study also investigated situations at a home level; the influence of nuclear family system on education at home and various results of weakened home education. Also, this study examined situations at community level;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the rapid transitions into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have created, and its influences on morality. The study also examined some changes in the criminal status. This study included an examination of the traditional systems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past as well as contemporary systems of the character education.

now. This study shows some positive points of traditional character educations and suggested some possible ways to introduce them into practice. The study also examined some ways of implementing character education through experience centered education rather than through knowledge centered education. Tasks of the character education includes the followings;

1. Tasks of character education at a School level.

The curriculum should be made to insure a sound knowledge, sound morality and sound body for the students is built and an effort should be made to achieve this goal in practical level. The teachers should be trained to be a moral model to ensur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and the work load should be lightened and distributed effectively for the teacher to concentrate on educ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encourage coopertions between home and school to make educa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practice possible.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should be revised to integrate curriculums to ensure character education rather than the knowledge education for the higher educations.

2. Task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t the home level.

For the success of character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haracter education at home and acknowledge the new roles of parents in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for the parents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implement character education at home. Parents with the right morality and ability should cooperate with the schoo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s by the cooperations with the school. The parents can also participate in character education through programs of their

own making.

3. Task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t community level.

In character education, involvement of commun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peer groups, mass media and social trends have a great impact on students in modern society. Enough space for the studen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students to learn about attitude "living together", mutual yield and negotiation skills through playing with other students. Religious life should be recommended to ensure successful character educations and bad environment should be removed for character education also.

character education is not a new idea nor an impossible task to be implemented. It can not be a educational slogan in propaganda nor goals achieved instantly. It can not be achieved by implementation in only one subject in school. It should be implemented in school activities across the board repeatedly. It should be a subject that every teacher is in charge of. Home and community should become involved as a cooperator in character education